



강북구의회
GANGBUK-GU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동북일보 5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정치를 위해 노력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국별로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지난 6일 위원회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했고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에서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지난 2일 행정보건위원회는 이영심 위원장의 주재로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정행기 국장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국의 각 과를 통합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다.

이순영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이종순, 김도연, 김용욱, 최선 의원의 순으로 다양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고 특히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북상공회 경영지원, 정책제안제도, 도로명 사업추진,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였다.

이중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질의와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종순의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불용되지 않게 하라. 잔여 예산을 시장 내의 모유시설 등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 ▷김도연의원: LED, CCTV, 전광판 등의 설치가 끝나면 전기세, 유지보수에는 구비가 소요되나? 여성화장실내에 귀저기대를 갈아줄 수 있는 장소가 각 화장실마다 있나? 등록시장, 인정시장은 혜택을 받지만 자연적시장은 혜택에서 계속 제외 되는데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 ▷김용욱의원: CCTV를 골목시장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이니까 신경 쓰고 마을버스와의 연결에도 신경 써라. ▷이순영의원: 골목시장 시설 유지비 4,500,000원이 관리비에 있는데 골목시장 전체가 대상인가? 우리구는 재래시장이 많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의 예산 편성이 감액된 이유는? 주위 상가 주민들이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시중보다 얼마나 싸게 파나? ▷최선의의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지정을 받고 있는 시장만 지원을 해준다. 롯데마트도 상도의도 없이 유통업계에 뛰어들고 시장끼리도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 해법이 있는 것인가? 국·시비 지원여건을 만들기 위해 삼양시장 상인들이 임의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모습

데 대해 구청의 협조를 부탁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용한 지역경제과장은 "재래시장 국비보조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지침(등록된 시장, 사업주체 상인회 결성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강북구는 수유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 번동북부시장 등 4개의 시장만이 해당된다. 안타까우나 규정상 4개의 시장만 국비 혜택을 보고 있고 마치 3개의 시장이 한군데로 집중되어 있어 오해도 받고 있다. 인정시장의 여건이 있으나 등록이 안 된 시장은 시장 등록시켜 상인회를 결성하여 국비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비사업인 화장실개선사업에서는 따지지 않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자매도시의 상인들이 구청광장에서 1년에 2회 설날과 추석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성수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북구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추석 때만 개장할 계획이라 직거래장터 예산편성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직거래장터의 물품 시세는 시중보다 약 20% 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는 명절 성수품 위주보다는 특산물 위주로 판매하도록 편성해서 지역 상인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수유골목시장 내에는 CCTV가 1대 있으나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 CCTV 설치 목적은 시장 내 도난방지와 CCTV의 감시기능을 이용하면 화재연기를 빨리 감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화재예방 차원이며 수유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은 주차장 건립대상으로 현재 60면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수유골목시장의 현대화사업의 시설비는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민자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시행 예정에 있으며 시설 후에 관리하는 시장상인들이 하나 고장, 보수의 필요시 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금액이 많은 경우는 국·시비로 개·보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등

록 골목시장에는 화장실이 없고 시비로 개·보수는 가능하나 화장실 설치공간이 없어 시장 인근의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김도연 의원:골목시장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굳이 땅을 사서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함) 여자화장실개발사업은 등록된 4개 시장은 완료되었으며 수유프라자시장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350,000,000이 소요 예산으로 예산되어 총사업비에서 100,000,000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될 것 같다. 안타깝지만 화장실개선사업으로 교부받았기에 시장내의 모유시설이나 타 시설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동수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구의회, 이종순 의원, 김도연 의원 2011년도 예산 심의 결과

모든 연령 및 계층 소외 없는 적절한 예산 반영에 초점

이종순 의원(한나라당·송천동 삼양동 삼락산동)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 및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 적정히 반영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속 이종순 의원은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마치며 소감을 밝혔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이종순 의원은 지역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일간신문 지원 비율이 많이 낮음을 지적하고 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반장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특히, 보건소 신규사업인 총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의 아동들에게 어금니 교합면의 흠을 메워주는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하여는 아동의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각 성별 또는 개인별발달이 다른 사업

대상을 취학통지서 수령아동에 한정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전교육과 관련 강북문화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예산 대비 많이 활성화

구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위해 노력

김도연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제14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 "경기 침체로 어려운 구 살림이지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복지나 교육부분 사업 부분에 예산 비중을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라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속인 김도연 의원은 노후화된 수유3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용 예산을 지적하며 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의 장점을 살려 리모델링,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특히, 사이버 스쿨과 관련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사업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홍보담당관과 교육지원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부서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상황과 관련 보고를 듣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 또는 지연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강북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최동수 기자 cdoosoo12000@harmail.net)

변화의 바람, 정책을 엄마들이 세워야 한다

김도연 강북구의회의원(민주당·비례대표)

"주민의 입장일 때는 나와 가족을 위한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구의원이 되고 보니 개인적 이익보다는 모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일상화가 되었어요. 의원으로서 요구보다는 들어주는 입장이 되었고 또 이를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초선의원인 김도연 구의원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당한 氣運(기운)이 느껴졌다.

6대 기초의회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어나서 여성의원이 전체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구의회가 14명의 의원 중 6명이 여성의원으로 42.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신실하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바도 크다. 초선의원으로 지방의회 변화의 중심축에 진입하여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생활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소속인 김도연 의원에게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느낀 소감에 대해 물어보았다.

"의회에서는 매일 질문만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의원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문서, 원마로서, 머니로서 즉 여성만이 알 수 있는 여성의 시각으로 육아, 보육, 교육, 여성의 삶에 대한 불편한 점 등을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하여 조금씩 바뀌어가고 모성애적 감정으로 소외된 계층과 소수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천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점진적으로 바꾸다 보면 커다란 변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모두 할 때 사용하는 유혹기가 보건소에 10대 있었는데 10대를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고가이고 필요로 하는 과다는 소수이지만 아이들의 모두 기간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서 여성 현실을 정치에 반영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평일에도 의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의정현안을 살피고 연구하는 열성파로 소문이 나았는데 주요 관심사 및 정책의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초선이라 행정용어도 서툰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각종 서류와 관련 책을 보고 있다는 김의원은 친환경 여러 정책의제 중에서도 무상급식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관 건립, 출산장려정책에 제일 관심이 있다고 한다.

"우선 예산책정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 아이들의 먹거리 리만은 최소한 외국산 농수산물에 무방비로 노출시키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를 방문하고 현지 직거래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농·축산 발전까지 도모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의 대상으로 인해 포플리즘이 아니다하는 공전의 파행사태를 겪고 있지만 저는 부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아이는 동등하게 모두 복지혜택을 누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북구의회에서는 2011년도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으로 현재 20억원이 심의 중에 있다." 아울러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때문에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고 방과후의 수업 여건은 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더욱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번1동, 수유 2.3동에 현재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 건립에는 예산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 그러나 번1동 같은 경우 2012년까지 자전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건물이 건립되면 지하와 1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2.3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수유3동의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였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비효율적이다. 특히 번1동, 수유3동은 상업지역으로 아이들이 유혹기에 노출되어 유혹의 손길이 많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교육·문화적 차원에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저출산대책에 관해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정말 예비 엄마들에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한다. 여성문제는 여성이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엄마들이 엄마의 조건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효과는 없을지라도 여러 방면에서 조그마한 부분부터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엄마로써 여성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난 30일로 행정사무감사가 비판과 견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속에 끝났는데 집행부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자료의 내용과 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구정질문과 행정감사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의원이 한정적인 시간에 다 볼 수가 없고 생각은 많으나 정확하게 질문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집행부 자료인데 집행부에서는 구태의연한 자료보다는 참신하고 알아보기 편한 방법을 연구하여 자료 제출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인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같이 8대 과제로 생애단계인 보육, 아동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와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복지예산을 증액할 생각이며 시급성과 효율성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의 필요성과 문제점, 지역신문의 지원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정에서는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지로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역신문에는 강북구의 전반적인 소식과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있어 강북구내의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고 또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협하게 지우치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모든 일은 양면이 있으므로 지역신문이 시정감을 갖고 여론의 장을 형성하면 판단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저녁 6시에 예결위원회 모임이 있다며 바빠 일어서는 김도연 의원을 보면서 소통의 부재의 시대에 강북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여성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다.

(최동수 기자 cdoosoo12000@harmail.net)